■ 설치는 소화전 도둑…관창 없는 소방호스 실험 해보니

물줄기 고작 5m 앞에서 '줄~줄'

관창 있으면 20m까지 집중 분사

도난 상태서 화재 발생땐 큰 피해

최근 고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 소방호스의 구리 관창(管槍·nozzle)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15일 서구 유촌동 상무 버들주공 아파트 소방호스의 관창 323개(시가 770만원 상당)가 감쪽같이 도난당했으며, 15~16일 대전·청주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소화전 내에 있는 소방호스용 관창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본사 취재팀은 16일 오후 광주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와 화정119안전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일반 아파트와 가장 흡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물을 뿜어내는 배관압력이 아파트 소화전 수압과 비슷한 0.17MPa(1㎡당 17t) 상황에서 실시했다. 소방호스는 도난사고가 발생한 버들주공 아파트와 같은 지름 40㎜·길이 15m 호스를 사용했고, 관창도 성능이 같은 종류를 선택했다.

화정119안전센터 박성식 소방장이 관창을 부착한 호스에서 물을 분사하기 시작했다. 약 2초 가량이 지나자 물줄기는 20m 전방에 있는 차량에 닿았다. 호스에서 뿜어져 나가는 물은 주변으로 흩어지지 않고 집중적으로 한 방향으로 분사됐다.

다음은 관창이 없는 소방호스. 배관 스위치를 올리자 물이 호스를 타고 들어왔고 물줄기는 5m도 채 못 가고 말았다. 특히 물줄기의 방향이 한 곳으로 향하지 않고 주변으로 흩어져 화재시 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내기 어려워 보였다.

실험을 지켜보던 채병철 화정119안전센터 부센터장은 "관창의 역할은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하고 그 끝을 손으로 꽉 잡아 물을 멀리 보내는 원리와 같다"며 "화재 발생시 관창이 없는 소방호스는 화재 현장을 잘 공략하지 못해 초기진화에 실패한다"고 말했다.

이날 물 분사 실험은 소방호스의 관창이 없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절도범들은 불과 개당 2천400원에 불과한 고물가격을 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시설을 손상·파괴·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 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50조 3호)이 있지만, 절도죄(최고 6년 이하 징역)보다도 양형 규정이 낮아 큰 의미가 없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최병근 변호사는 "수많은 대중들을 위협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관창(管槍·nozzle)=액체나 기체를 고압으로 멀리 내 뿜기 위해 호스의 분출구에 붙인 창(槍)모양의 좁은 관. 분출 단면적을 작게 해 압력이 속도에너지로 바뀌도록 하는 노즐의 일종이다. 소방장비로서의 노즐은 황동으로 제작된 창 모양의 관 구조여서 관창(管槍)이라고 하며 소방관들 중 이를 붙잡고 불을 진화하는 사람을 '관창수'라 부른다. 아파트 소화전호스에 붙은 관창은 길이 15~20㎝의 황동제다.

광주 서부소방서 화정119안전센터 박성식 소방장이 16일 관창을 제거한 소방호스로 분사 시험을 하고 있다. 관창이 없는 소방호스의 물줄기는 5m를 못 나갔으며, 물의 진행 방향도 일정하지 않아, 화재 초기 진압이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노래방 강도 초상화 제작

피해자들 "똑같다" 탄성

경찰, 화가까지 동원

연쇄 노래방 강도를 잡으려고 '목소리 분석' '최면수사' 등 온갖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에는 예술계에 도움을 청했다. 한국인 얼굴 특징에 익숙한 전문 화가를 불러 몽타주보다 실물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경찰의 요청을 승낙한 사람은 지난 30여 년 간 초상화를 전문적으로 그려온 이모(49) 화백. 그는 10여 전에도 서부경찰에서 용의자 초상화를 그려 수사에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이 화백은 지난 11일 오후 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강도 피해자 이모(여·59)·황모(여·51)씨와 목격자 A(50)씨를 만나 설명을 들었다. "눈을 더욱 작게 그려야 한다"는 등 두 시간여 동안 그렸다, 고쳤다를 반복했다.

하얀 도화지 위에 분주하게 움직이던 이 화백의 4B연필은 용의자 얼굴〈사진〉 윤곽을 선명하게 보여 줬고, 목격자와 피해자들의 입에서는 "똑같다"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경찰이 20만원을 들여 범인의 얼굴을 그린 것은 다섯 번이나 만든 몽타주가 정확하지 않아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 동부경찰은 16일 노래방 강도 용의자의 얼굴 모습 전체가 드러난 초상화를 담당 형사들에게 나눠줬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에서는 노래방 강도 사건이 모두 13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경찰은 특진과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학 치과병원 교수들간 폭력

원장 보직 사퇴 '파문'

대학 치과병원에서 교수들간 폭력 사태로 인해 원장이 보직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 모 대학 치과병원은 16일 최근 교수 폭력사건과 관련, 원장인 J교수가 보직에서 사퇴했고 밝혔다.

J교수는 지난달 30일 교수 연구실에서 같은 과 제자인 H교수와 주먹다짐을 해 보직사퇴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J교수는 그러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장에서 물러난 것일 뿐 폭행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으며, 병원 측은 조만간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징계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H교수는 그러나 대학본부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광주지검에 J교수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일부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조만간 학교측 주최로 공식 공청회를 하기로 했다.

앞서 학교 측과 병원 측은 양측을 불러 중재 자리를 가졌지만, 두 교수의 갈등의 골이 깊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 장기매매

372명 수사 착수

광주·전남 21명을 포함, 장기매매를 알선한 용의자 372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장기매매 알선자·장기 구매 희망자·관련 인터넷 카페 개설자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들에 대한 통신추적을 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는 ▲서울 67명 ▲부산 47명 ▲대구 11명 ▲인천 22명 ▲울산 2명 ▲경기 66명 ▲강원 8명 ▲충북 10명 ▲충남·대전 25명 ▲전북 17명 ▲광주·전남 21명 ▲경북 19명 ▲경남 57명 등이다.

경찰은 불법 장기매매 사이트를 폐쇄하고 용의자들을 상대로 장기매매 알선, 사기,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수사키로 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장기매매에 사용한 전문 브로커 3명 등 장기밀매 사범 67명을 지난달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장기매매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고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 위조행위까지 함께 이뤄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매된 집 임대 '사기'

광주지법, 실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16일 경매가 신청된 집을 임대해 6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경매개시 결정이 이뤄진 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를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지!
| 풍영정천 · 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입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조업 어선 선장 실종

16일 새벽 5시께 여수시 삼산면 소삼부도 남서쪽 2마일 해상에서 부인과 함께 조업하던 여수 선적 연안복합 어선 4.97t급 '승일호' 선장 최모(57)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만취 30대 서울~광주 '아찔 운전'

쌍나팔

○…만취상태의 30대 남자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360㎞가 넘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온 것으로 밝혀져 단속경찰이 아연실색.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1)씨는 지난 15일 밤 10시44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75% 상태로 운전을 하다 광주시 동구 소태 IC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친구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 술을 마신 후 고향인 보성에 내려오기 위해 '17허55XX호 렌트 승용차를 몰고 광주까지 단숨에 달려왔다고.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좋은사람, 좋은여행-
참좋은여행
www.verygoodtour.com
일반여행업 등록 685호 / 롯데백화점 광주점 건너편
대표번호 1588-7557
광 주 점 062)515-7600
거품없는 가격만족! 품질만족!
꿈꾸던 여행이 시작됩니다.(단체문의 환영)
아름다운 사람들-아시아나와 함께
봄의 향기 가득한 제주도 여행
[특가]왕복항공 3박4일 (일반호텔합숙)
₩139,000 ▶5/2,23
[항공]선박2박3일(일반호텔합숙) ₩119,000 ▶5/9,16
[주중]2박3일 정기관광 (월/화/수/목요일 출발)
일반호텔 합숙 ₩159,000
관광호텔(2인1실) ₩175,000
[현철,이용식]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날 효도잔치]
제주 2박3일(일반호텔 합숙기준) 5/6일 ₩249,000
제주 3박4일(일반호텔 합숙기준) 5/7일 ₩249,000
노팁! 노옵션!
광주출발/도착 해외여행
[실속!] 장사/장가계/원가계 4일/5일
₩620,000(4일) ₩680,000(5일)
[품격!] 장사/장가계/원가계 4일/5일
₩670,000(4일) ₩720,000(5일)
상해/항주/주가각/소주 4일
₩419,000 ▶매주 수요일출발
[문화탐방] 일본 큐슈크루즈 4일
통나무콘도 ₩279,000 ▶5/6,13
통나무콘도와 전통온천호텔 큐슈크루즈 4일
₩319,000 ▶5/11,25
싱가폴/바탐/조호바루 5일
₩699,000 ▶5/30(단1회)
북경/만리장성/부국해저(MU) 4일
₩359,000 ▶4/24,25
[품격!] 융프라우+나/폼/소+유럽6국 12일
₩3.090,000 ▶5/10
인천출발상품
중국/일본/동남아
단거리노선
중 국
[노팁+온천]북경/만리장성/용경협+워터파크 4일
₩349,000 ▶4/24,25,26,27,29 5/1,6
[파격!]북경/만리장성/부국해저(동방항공) 4일
₩199,000 ▶4/21,22,24,25,27,28,29,30
[트래킹!]상해/황산일출/항주 5일
₩499,000 ▶4/25,27,5/9,14,16,18
[인기만점]하이난 호라이즌리조트 5일
₩899,000 ▶4/16,17,18,19,20,23,24,25,26,27
(OZ연합항공이동)중경/구채구+황룡 5일
₩849,000 ▶5/4,11,18,25,6/1,8,15,22
서안/장가계/원가계/천문산/계림(MU) 7일
₩799,000 ▶5/7,14,21,28
[품격!]북경/장가계/원가계 5일
₩699,000 ▶5/6,7,9,13,14,16,20,21
곤명/석림/구향동굴/대리/여강(특급호텔) 6일
₩829,000 ▶4/22,5/6,13,20
일 본
동경/닛꼬/후쿠시마온천 4일
₩549,000 ▶4/22,24,25,5/6,8,9,12,13,15,16
오사카/나라/교토/벳부온천 4일
₩599,000 ▶4/25 5/9,16,23,30
[크루즈특별기획]플라워축제/히로시마온천 5일
₩449,000 ▶5/1
북해도/아오모리/해저터널54km 5일
₩799,000 ▶4/24,5/①,⑧
북큐슈/하우스텐보스/벳부/아소/구마모토 5일
₩549,000 ▶4/23,5/7,14,21,28
新일본핵심 5일
₩799,000 ▶5/6,8,10,13,15,17,20,22
일본속의 네덜란드 하우스텐보스/벳부온천 4일
₩599,000 ▶4/21,24,㉕
동 남 아
[노팁!풀옵션!]방콕/파타야/로얄드래곤 5일
₩499,000 ▶4/24,26,28, 5/5,8,10,12,15,17,19
(알뜰만족)태국/캄보디아 앙코르왓 5/6일
₩399,000 ▶5/4,7,11,14,18,21,25,28
(OZ실속)푸켓/팡아만/산호섬+전통안마 6일
₩499,000 ▶4/25,5/1,2,29,30 6/12,1319,20
[고품격!]홍콩/태국/싱가폴/말레이시아 7일
₩849,000 ▶5/5,12,19,26 6/2,9,16,23
[만족100%!]홍콩(해양공원)+야경+심천 4일
₩499,000 ▶4/24,25,26,5/1,2,3,6,8,9,10,11,12,~
베트남/캄보디아/앙코르왓 6일
₩699,000 ▶5/3,14,17,28,31,6/11,14,18,21
(불교의 성지 미얀마특집)
미얀마완전일주!양곤/바간/혜호/만달레이 6일
₩1,290,000 ▶5/10,17,24,31,6/5,7,14,21
[문화탐방!]미얀마/양곤/바간/혜호 5일
₩1,149,000 ▶5/1,3,8,10,1517,24,29
인천출발상품
대양주/유럽/미주
장거리노선
대 양 주
호주(포트)/뉴질랜드남북섬+와이토모 10일
₩1,390,000 ▶4/28, 5/12,13,22,26 6/2,9,16,23
타우포송어낚시+호주/뉴질랜드남북섬(국적기) 11일
₩1,390,000 ▶5/9,16,23,30
호주/시드니/포트스테판/울릉공 6일
₩999,000 ▶5/7,16,19,23,30
환상의 피지 요트크루즈+호주/뉴질랜드3개국 13일
₩1,790,000 ▶4/24,5/1,8,15,22,29
사이판 PIC골드+씨사이드그릴 4/5일
₩709,000 ₩829,000
(괌 특급!)힐튼호텔+전객실 레노베이션 4/5일
₩549,000 ₩599,000(무등록 해양스포츠 무료 1회)
유 럽
[찬스]특가! 스페인/포루투칼/모로코 11일
₩2,190,000 ▶5/1,8,15,22,29
[찬스]실속!노팁!노옵션! 서유럽6국 12일
₩2,590,000 ▶5/6,13,20,27
유럽3대박물관/베르사이유궁전/세느강유람선/융프라우/베네치아곤돌라
[봄의왈츠]노팁!노옵션! 동유럽5개국 9일
₩2,090,000 ▶4/23,24,27,30,5/⑦,⑭
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오스트리아
[신동유럽]아드리아海 발칸6개국 완전일주 12일
₩2,490,000 ▶5/5,9,16,23,30
루마니아/불가리아/체르비아-몬테네그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찬스]특가!알뜰여행!터키+그리스일주 9일
₩2,090,000 ▶5/1,6,8,13,15
품격!노팁!노옵션! 터키항공일주(TK) 8일
₩1,690,000 ▶5/2,5,9,12,16,19,23,26,30
[특선!]러시아/북유럽4국(SU) 12일
₩2,490,000 ▶5/5,9,12,16,19,23,26
[실속!골든트라이앵글]북인도문화기행 9일
₩1,390,000 ▶5/5,12,19,26
미 주
미서부+미동부일주+캐나다 13/15일
₩2,090,000부터▶매주 화/금/일 출발(2명이상 출발)
(AC연합)애드먼튼 쟈스퍼 록키 항공일주+미동캐 15일
₩3,190,000 ▶5/3,10,17,24,31
캐나다 록키완전일주+수상경비행기 9일
₩2,290,000 ▶5/7,14,21,28
(OZ연합)미동부/보스톤 8일
₩1,990,000 ▶5/1,8,15,22,29
(OZ연합)미서부/3대캐년 7일
₩1,390,000 ▶5/6,13,20,27
(KE연합)하와이/미서부3대캐년+유니버셜 10일
₩2,190,000 ▶5/3,10,17,24,31
(2명부터 부라보) 하와이 5일
₩990,000 ▶5/8,22(단2회)
하와이+마우이+미서부일주 10일
₩1,590,000 ▶5/25(단 하루)
[노팁!노옵션!]고품격 퍼펙트 중남미7개국 20일
₩6,290,000 ▶5/1,8,15,22,29 6/5,12,19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주관: 참좋은여행(주) • 서울시 중구 서서문동 21-1 효성빌딩 11층 • TEL: (02)595-7000(代) / FAX: (02)599-4555 • 여행불편처리센터: 1588-8692 • 교통편: 항공 및 전용버스 / 전지역 • ○날짜 요금안상 • 추가 경비 없음(단 개인적인 팁,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 공통여행조건: 여행경비 1인기준 (공항세, 출국세 포함/별도 표지역 외 1급 호텔 이용, 개인팁 1일-US10$/¥1,000 /10유로를 권장합니다. 식사포함, 최소 출발인원 : 10~15명, 해외 여행자 보험